

新羅 注口附容器에 대한 研究

- 有孔廣口小壺와의 比較·檢討를 중심으로 -

愼 仁 珠

Shin, Injoo

東亞大學校 博物館 助教

I. 머리말

慶州지역을 중심으로 5세기에 해당하는 고분에서는 注口附容器가 출토되는 경우가 있다. 注口附容器라고 하는 것은 胴體部에 圓筒形 管을 부착시켜 注口기능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¹⁾ 이러한 注口附容器에 대한 연구의 시도는 우선 시기적으로 積石木槨墳이라는 묘제의 출현과 이 묘제의 존속시기에만 부장되고, 지역적으로는 新羅文化圈에 속하는 지역에서만 보인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注口附容器를 중심으로 당시 新羅의 정치적·문화적 영역 확인은 물론 분묘와 공반유물을 통한 新羅美術의 특징을 밝히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有孔廣口小壺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문화적 차이를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일상생활 용기가 아닌 부덤의 부장품이라는 공통점에서 그 특이한 용도를 밝히는데 있다.

II. 注口附容器의 출토상황<表1>

(1) 皇吾洞 第14號墳(도 1)

이 고분은 1934년 발굴하였는데²⁾ 봉토는 발굴전에 많이 훼손된 상태였다. 당시 잔존한 봉토는 평면이 사각형에 가깝게 되어 있었고, 직경 15m, 높이 2.5m

1) 名稱에 있어서 종래에는 器種을 중시할 경우 注口壺, 注口小壺로 製作材料를 중시할 경우 注口土器로 불리워 왔으나, 필자는 기종과 재료를 통합하여 注口附容器라 칭하고자 한다.

2) 齋藤忠, 「新羅の甌斯墳」, 『考古學雜誌』, 27-5, 1937.

의 규모였다. 봉토내부에서는 主東副西로 배치된 主副槨式 墓槨이 남북 2개소에서 각각 발견되어, 남쪽 것을 제 1곽과 제 1부곽, 북쪽것을 제 2곽과 제 2부곽으로 칭하였다.

<表 1> 注口附容器 出土狀況

古墳名	注口附容器				新文化要素를 가진 共伴遺物	古墳型式	性別 推定
	脚部有	脚部無	裝飾附加	갯수			
皇吾洞 14號墳	○ (?)	○ (?)	×	4점	太環耳飾 1雙(鍍金部分)	積石木槨墳 (瓢形墳)	男
皇南大塚 南墳	○ (12점)	○ (3점)	×	15점	太環耳飾 2雙, 細環耳飾 1雙, 指環, 其他裝身具(鍍金部分) 鳳首形琉璃瓶 1개, 網目支琉璃杯 1 개, 淡綠色杯 2개, 藍色琉璃碗 1개, 金銅冠片(出字形立飾系)	積石木槨墳 (瓢形墳)	男
烏岩洞 古墳	○ (1점)	○ (1점)	×	2점	金銅冠片(圓形樹葉狀立飾)	積石木槨墳 (瓢形墳)	男
昌寧桂南里 1號墳	○ (2점)	○ (1점)	×	3점	太環耳飾 1雙(鍍金部分) 金銅冠片(出字形立飾系)	竅穴式石槨墳 (單獨墳, 木製槨伴石蓋)	男
東萊福泉洞 1號墳	×	○	✓	1점	金銅冠片(出字形立飾系)	竅穴式石槨墳	男
東萊福泉洞 34號墳	○	×	○	1점	모름	모름	모름
味鄒王陵 C地區3號墳	○	×	○	1점	太環耳飾 1雙(鍍金部分)	積石木槨墳 (單獨墳)	男
飾展塚	○	×	×	1점	金製耳飾, 金銅鞍橋, 金銀裝雙龍 環頭大刀, 龍首柄遮斗	積石木槨墳 (單獨墳)	男
金鈴塚	○	×	○	4점	細環耳飾 4雙, 腕釧, 指環, 頸飾, 其他裝身具(鍍金部分) 金銅冠片(4山形立飾, 鹿角形立飾, 金製瓔珞) 斑點支琉璃碗 2개	積石木槨墳 (單獨墳)	男



도 1. 皇吾洞 第14號墳 出土(高7cm, 口徑6.5cm, 注口長8cm)

1곽과 1부곽의 墓槨內에서 출토된 유물은 銀製冠飾, 金製細環耳飾, 金製太環耳飾, 銀製鈴帶, 頸飾 등의 裝身具와 銀製鞍橋, 鏡子 등의 馬具, 그리고 銀裝環頭大刀를 비롯한 각종 鐵器와 土器類이다. 土製 注口附容器는 제 1부곽에서 총 4점이 출토되었으며 脚部의 흔적이 있는 것도 있다.

2곽과 2부곽 내부에서는 太環耳飾, 頸飾, 下釧 등의 裝身具 및 馬具, 鐵製利器와 土器가 출토되었다. 이 고분은 瓢形墳으로 1곽의 남자묘가 먼저 축조되고, 북쪽의 2곽이 뒤에 만들어진 여자묘이다. 따라서 이 고분은 부부묘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2) 皇南大塚 南墳(도 2·3·4)

1973년부터 1975년에 걸쳐 文化財管理局 慶州古蹟發掘調査團이 발굴하였다.³⁾ 경주에 남아 있는 최대의 봉토분으로 규모는 東西直徑 80m, 南北길이 120m이며, 높이는 南墳이 22.2m, 北墳이 23m이다. 墓槨의 積石部는 완전히 지상에 설치된 것으로, 積石部는 먼저 丸木으로 거대한 골격적 틀을 짜고 거기에 맞추어 냇돌을 쌓아 축조한 것이다. 木槨안의 피장자는 60살 전후의 남자로 밝혀졌고, 그 밖에 내곽 안에서 20대 여자 유골 일부가 추가 수집되어 같은 묘곽 안에 매장하여 순장된 여자라고 판단되고 있다.⁴⁾

유물은 封墳 정상부에서부터 출토되는데 馬具類 중심의 유물들이고, 봉분 中段쯤 높이의 봉토 표면에서 小形土器, 魚骨, 貝殼 등이 담긴 大形壺가 여러

3) 金正基 外, 『慶州皇南洞 98號古墳(南墳) 發掘略報告』,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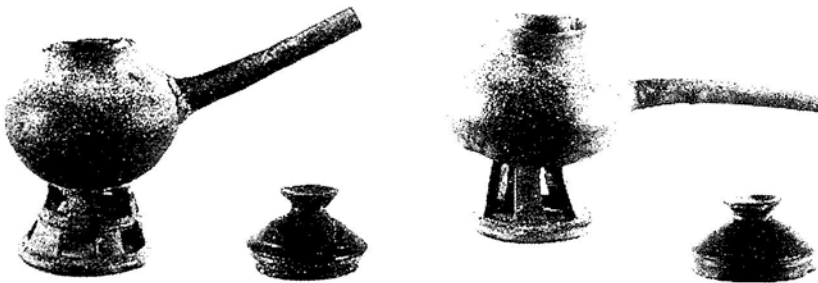
4) 張信堯·金達澤, 『慶州 第98號古墳 南墳에서 出土한 古墳骨에 關한 研究』 『文化財』 10, 1976.

곳에서 발견되었다. 主槨内部에서는 内棺에서 피장자가 착용한 각종의 장신구가, 外棺의 부장품 수장부에서는 貴金屬容器와 漆器, 琉璃容器, 銀冠, 金製冠飾 등의 裝身具, 金裝大刀 등의 武器가 출토되었고, 副槨에서는 玉蟲의 날개로 장식된 金銅製鞍橋를 비롯한 각종 馬具類와 鐵器, 土器가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注口附容器는 副槨에서 뚜껑과 짝을 이룬 것이 3점, 뚜껑과 호가 분리된 것이 9점, 총 12점이 출토되었다. 이 12점의 口緣部와 注口部, 脚部の 형태에 의해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⁵⁾

전자도 2는 胴體의 頸部가 짧게 직립하고 口緣部는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胴體 중앙 상부의 圓筒形注口는 위로 향해 뾰고 연결부분이 관통되어 있다. 脚部는 正方形에 가까운 투창을 상하가 서로 엇갈리게 5개씩 2단으로 배치하고 脚端은 둥글게 처리하고 있다. 후자도 3는 頸部가 직선상으로 약간 바라지며 입술은 뾰족하게 처리하고 있다. 脚部에는 長方形 투창을 1단으로 5개씩 배치하고 脚端은 단면원형을 이루면서 외반하고 있다. 원통형의 주구는 약간 휘어진 형태로서 동체와의 연결부분이 관통되어 있다. 뚜껑은 모두 단추형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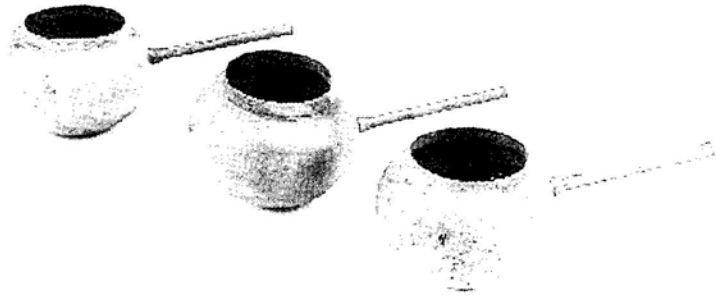
銀製注口附容器도 4는 主槨 수장부 내에서 3점이 흩어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3점 모두 胴體部 中上段 部位에 약 7.6cm 길이의 원통형 관을 끼운 뒤 빠지지 않도록 端部를 3~6등분으로 잘라 안쪽으로 벌려 놓았다.



도 2. 皇南大塚 南墳 出土
(蓋高3.2cm, 口徑4.5cm, 壺高9.1cm
口徑3.8cm, 脚部徑5.5cm, 注口長8.4cm)

도 3. 皇南大塚 南墳 出土
(蓋高3.4cm, 口徑6.0cm, 壺高10.4cm
口徑4.9cm, 脚部徑5.8cm, 注口長10.6cm)

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 1994, p.204.



도 4. 皇南大塚 南墳 出土(高5.8cm, 口徑5.4cm, 注口長7.6cm)

(3) 鳩岩洞 第56號墳(도 5·6)

이 고분은 慶尙北道 漆谷郡 漆谷面 鳩岩洞에 위치하고 있는 積石石槨墳이다. 石槨의 대부분이 지상에 축조된 상태이다. 즉 암반 위에 석곽이 축조된 셈이며 積石部の 토양과 석재는 대부분 이곳 구릉의 것이 이용된 것이다. 고분의 외형은 圓形墳으로 다른 지방의 가야고분과 같아 보이지만 이 봉분은 모두 積石으로 이루어져 積石墳을 형성한 특이한 양상이다. 이 고분은 전형적인 積石



도 5. 鳩岩洞古墳 出土
(高12.8cm, 口徑10.4cm, 注口長2.4cm)



도 6. 鳩岩洞古墳 出土
(高13cm, 脚部高5.6cm, 脚部徑9cm
器身高8cm, 口徑10cm 注口長9cm)

6) 嶺南大學校博物館, 『鳩岩洞古墳發掘調査報告』, 古蹟調査報告 第2冊, 1978.

7) 가야의 묘제는 대체로 수혈식석곽분계와 횡혈식석실분계가 있는데, 모두 외형은 土築封土墳으로서 圓形墳을 형성하고 있다.

石槨墳으로 南墳과 北墳으로 구분되어 있어 주목된다. 남분에 비해 북분은 규모가 작고 축조시기도 늦어 본분에 잇대어 追加葬한 것으로 추정된다.

本墳 主槨에는 金製鈔帶, 鐵製利器, 馬具類 및 各種土器 등이 출토되었다. 土製注口附容器는 모두 2점으로 南墳 主槨에서 출토되었는데, 1점(도 5)은 胴體部는 둥글지만 肩部가 두드러지게 크고 넓으며, 頸部는 胸部에서 약간 직립한 정도로 短頸이고 口徑이 비교적 크다. 나머지 1점(도 6)은 有臺形附容器로 脚部는 2단구조이며 各段에 3개씩의 方形透窓이 뚫려 있다. 胸部는 球形이고 頸部는 비스듬히 외반된 短頸이다. 器表面은 素文이고 회전대로 매끈하게 처리하였다.

(4) 桂南里 第1號墳(도 7·8)

昌寧郡 桂城面 桂南리에 위치한 이 고분은 圓形墳으로 그 내부 구조는 竪穴式石槨系의 主·副槨式 고분이다. 고분의 구조는 신라와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되는 木架構葺石蓋라는 특수한 구조양식의 蓋部를 형성하고 있다. 즉 지상에 川石으로 竪穴式 垂直塋을 축조하여 主·副槨式 묘곽을 형성한다. 석곽내와 천정부는 목재로 架構하고 그 위에 소관석을 덮는 木架構葺石蓋를 만든 것으로서 일반적인 가야묘제와는 다른 것이다.⁸⁸⁾ 이러한 분묘구조는 新羅의 積石木槨墳의 구조에서 목재가 부식된 후 돌의 일부가 함몰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출토유물은 主槨에서 銀製鈔帶, 金製耳飾, 金銅冠片, 鐵製利器 및 각종 土器가 출토되고, 副槨에서는 馬具類 및 土製注口附容器 3점이 출토되었다.

注口附容器중 1점(도 7)은 橫楕圓狀의 胴體에 비교적 긴 口頸部는 약간 內轉하다가 反轉하여 外反한다. 胴體의 2條 突帶 사이에 圓形 小孔을 배치하여 注口를 부착시키고 注口와 胴體 저부에는 成形時 대칼로 整面한 흔적이 남아 있다. 나머지 2점(도 8)은 有臺注口附容器로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제작되었다. 약간 뾰족한 구연단의 외측에는 단이진듯한 凹面을 가지며, 胸部는 各 1條씩 3條의 돌대로 4段으로 구획하였다. 胸部 중단에는 波狀文을 시문하고 제 3단에 원형의 구멍을 뚫고 注口가 부착되며, 脚部는 方形의 透窓 4개를 上·下 交互되게 뚫었다. 두점 모두 구연 일부가 결실되었고 후자 역시 注口가 달렸으리라 추정된다.

⁸⁸⁾ 가야지역의 고분의 주류는 竪穴式石槨墳인데 蓋部는 대체로 여러매의 板狀石을 덮는 石蓋式이다.

⁸⁹⁾ 이전에 가야묘제라고 칭해온 陝川 玉田 54호 고분과 玉田 M3호 고분도 이와같은 형식으로 신라 적석목곽분의 영향이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도 7. 昌寧柱南里 第1號墳 出土
(高12.3cm, 口徑6.4cm, 胴部最大徑12.8cm)



도 8. 昌寧柱南里 第1號墳 出土
(高12.4cm, 口徑10cm 脚部徑9.3cm)

이 고분에서는 注口附容器를 비롯한 여러 가지 異形土器가 보인다. 圓筒形器臺, 有臺兩耳鈴付杯, 鴨形注器 등이 출토된다. 이러한 특수한 토기들은 서로의 관계와 종교적·의식적인 신앙과 사상을 엿볼 수 있다.

(5) 東萊福泉洞 第1號墳(도 9)

이 고분은 1969년 釜山廣域市 東萊區 福泉洞 일대에서 택지조성 공사중 노출된 竪穴式石槨墳이다.¹⁰⁾ 출토유물은 金銅製冠片, 金製細環耳飾, 馬具類, 鐵製利



도 9. 東萊福泉洞 第1號墳 出土(高6.9cm, 口徑7.9cm, 殘存注口長3.7cm)

10) 東亞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1971.

器類등이 있고, 土製注口附容器(도 9)는 북쪽 土器群 바닥에서 有孔廣口小壺와 구연부를 맞대고 有臺深鉢안에 넣어진 채로 출토되었다.

(6) 東萊福泉洞 第34號墳(도 10)

釜山大學校 博物館 소장품으로 뚜껑과 몸체가 4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土製注口附容器이다.

뚜껑에는 三角集線文이 시문되고 정상부에는 蕨手形의 꼭지가 붙어 있다. 胴部の 중앙에는 斜格子文을 시문하고 脚部에는 작은 투창을 4段 7개로 뚫고 있다. 注口는 丸竹을 옆으로 절단한 형태이다.



도 10. 東萊福泉洞 第34號墳 出土
(高22cm, 脚部徑10cm, 注口長5.4cm)

(7) 味鄴王陵前地域 C地區 3號墳(도 11, 原色 5)

1호 고분의 남쪽, 2호 고분의 서쪽에 위치하며 積石部에 1호 고분의 外護石이 닿아 있는 單獨槨式 槨槨으로 長軸은 남북 방향이다. 피장자의 頭向은 남쪽이고 土副葬品群은 발치쪽에 설치되었다.

출토유물은 土器가 대부분이고 鐵斧, 金製太環耳飾, 頸飾, 銀環이 출토되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注口附容器는 神龜形土器로 일컫고 있다. 그 형태는 거북이지만 등 중앙에 注口, 전방에 注出管을 설치한 水注形容器로서 金鈴塚 출토의 騎馬人物甁土器와 같은 계통이다. 특히 이 神龜形土器는 전방에 괴이한 머리가 돌출하고, 후방에 구불구불한 꼬리, 頸部에서 背部를 거쳐 꼬리에 이르기까지



도 11. 味鄒王陵(地區 第3號墳 出土)
(高15.1cm, 脚部高4cm, 脚部徑5.9cm, 龜身高4cm, 注出口長5.3cm, 注入口徑3.7cm)

평행선으로 나열된 갈기의 모습은 그 생동감을 더해주는 듯 하다. 마치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된 천마도와 통구 삼실총의 사신수도 및 천마도처럼 보인다. 이것은 脚部위에 龜形의 胴部를 올려 놓은 형상이다.

(8) 飾履塚도 12)

1924년도에 梅原末治에 의해 金鈴塚과 함께 발굴 조사된 고분으로 발굴 당시 봉분은 많이 파괴되어 있었다.¹¹⁾ 원래는 직경 약 30m, 높이 6m정도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¹²⁾ 표면을 점토로 덮은 積石部는 직경 9m이며 묘곽은 單獨槨式으로 竅穴式土壙을 파고 지하에 설치되었다. 木棺 내부에서 피장자가 착용한 裝身具와 大刀가 출토되어 피장자는 남자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頭向은 동쪽이다.

출토유물은 白樺樹皮冠帽와 金製耳飾, 金銅製耳飾, 銀製鈎帶 등의 裝身具와 金屬容器, 漆器, 土器 등의 容器, 金銅製鞍橋, 鏡子 등의 馬具類, 金銀裝雙龍環頭大刀 등의 鐵製武器와 利器등이었다. 유물은 목곽 내부외에 복곽 상부에서도 鐵製利器와 土器 등 다수가 출토되었다.

11) 梅原末治, 『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大正十三年度古墳調査報告, 1932.

12) 註7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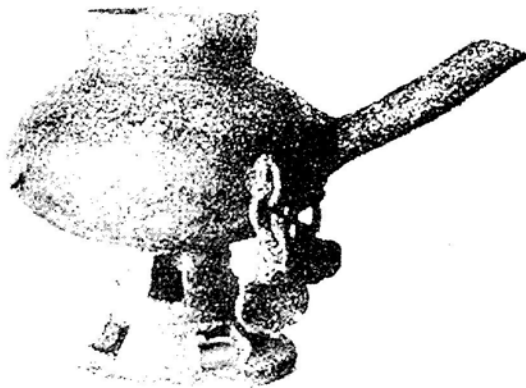


도 12. 飾履塚 出土(高9.4cm, 口徑6.1cm, 注口長6.2cm)

注口附容器는 1점으로 2단 투창의 脚部를 가진 金鈴塚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이지만 장식이 없다.

(9) 金鈴塚(도 13·14, 原色 6)

1924년 梅原末治에 의해 발굴조사된 고분이다.¹³⁾ 발굴당시 봉분은 이미 크게 파손을 입어 남북길이 약 13m, 높이 약 3m의 半月形으로 잔존해 있었다. 封墳의 원래 크기는 직경 약 18m, 높이 약 4.5m정도였을 것이라고 추정한다.¹⁴⁾ 積石部는 직경 약 9m였고 표면은 점토로 덮였으며 單獨槨式 槨槨은 동서장축의 土壙을 파고 지하에 설치되었다.



도 13. 金鈴塚 出土
(高9cm, 口徑4.4cm,
注口長5.6cm)

13) 註7과 동일.

14) 註7과 동일.

木棺 안에는 頭向을 동쪽으로 둔 피장자가 착장하였던 金冠을 비롯한 각종 金製裝身具와 大刀가 출토되었다. 木棺 주위에서는 鐵製利器 등 각종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木棺 동쪽에 집중적인 副葬品群이 설치되어 각종 馬具類, 貴金屬容器, 琉璃容器, 漆器와 약간의 土器가 출토되었다.

고분의 피장자는 裝身具와 大刀의 착장으로 보아 남자로 보이며, 木棺의 규모, 착장 장신구 등의 크기로 보아 연소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고분에서는 土製注口附容器가 총 4점 출토되었다. 2점은 飾附有臺注口附容器인데 상호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전자(高 7.6cm, 口徑 4.9cm, 注口長 6cm)는 胴部가 옆으로 현저하게 팽창되고 짧은 口緣部에 3개의 心葉形 장식을 가진 것이다. 후자도 口高 9cm, 口徑 4.4cm, 注口長 5.6cm)는 전자에 비해 胴部가 편평하며 口緣部가 길고, 전후 양측에 心葉形 장식을 각 2개씩 붙여 서로 대응시킨 것이다. 나머지 2점도 14. 原色 6은 흔히 騎馬人物形土器로 불리워지는 것으로, 방형의 판상 대좌위에 직립하는 말을 세우고 그 위에 일체의 마구를 착장한 뒤 따로 조형한 인물을 얹어 騎馬人物象을 만들고 있다. 말의 胴部는 中空이고 등에 杯部와 돌출된 注口가 서로 관통되어 있어 아마도 액체를 따르는 용기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注口附容器 이외에도 東亞大學敎 博物館 소장의 출토지 미상의 토기도 15를 들 수 있다. 이 有臺注口附容器는 脚部에 작은 圓孔이 2단 어긋나게 뚫려 있다. 胴部는 거의 球形에 가깝고 胴部 중간에서 약간 위로 세 개의 고리와 心葉形장식이 연결된 영락을 네곳에 달았다. 그리고 胴部 한쪽 중앙에는 위로 향하여 비스듬히 약 6cm길이의 注口가 달렸고 끝은 수평으로 되어



도 14. 金鈴塚 出土(杯部口徑5cm, 注口長6.1cm)



도 15. 出土地未詳 東亞大學校博物館藏(高10cm, 口徑5.5cm, 脚部徑7.2cm)

있다. 이 토기는 脚部가 부착되고, 장식성이 강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후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Ⅲ. 有孔廣口小壺와의 비교·검토

(1) 有孔廣口小壺의 분포

有孔廣口小壺는 胴部에 圓形小孔이 있고, 외반하는 단면 V자형 頸部와 口緣部가 廣口를 이룬 小壺이다. 이 토기에서 주목할 점은 廣口小壺의 胴部 중앙에 한 개의 둥근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이 토기는 우리나라 남부지방과 일본각지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그 기원을 두고 한국 또는 일본이라는 이견이 있으나, 근래에 유적의 성격과 토기기형과 분포, 편년에서 韓國起源說이 확실히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동강 서안과 영산강유역에 집중 출토되기 때문에 百濟起源說과 加耶起源說이 있으나 아직 정설은 없다. 백제기원설은 전라남북도 지방에서 有孔廣口小壺가 많이 출토되고 古式甕棺墓에서도 출토된 예가 있어 백제남부지방이라고 보는 견해이다.¹⁵⁾ 한편 가야기원설은 有孔廣口小壺의 始原形을 廣口小壺라 보고 이 광구소호가 주로 남해안 패총에서 출토되는 것과 有孔廣口小壺가 초기 백제의 중심지인 한강유역이나 금강유역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15) 金元龍, 「惠比須山墳墓群出土の韓國系遺物について」 『惠比須山遺蹟發掘調査報告』, 1974.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⁶⁾

그러나 가야기원설은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낙동강유역에서는 高靈池山洞 第32-35號墳의 주변식곽중 32NW 2에서 출토된 2개의 瓦口이 뚫린 것, 32SW-5에서 출토된 구연부가 없는 것이 있고 東萊 福泉洞 第1號墳 출토의 것, 출토지미상의 鹿附有孔廣口小壺도¹⁶⁾가 전부일 만큼 출토예가 적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영산강유역의 靈岩內洞里纒棺墓 出土 有孔廣口小壺가 3세기 중반경으로 편년되는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이고¹⁸⁾, 지역적으로 백제 중심지가 아닌 영산강유역에서 출토한다는 의문점은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결부된 문화적인 차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 영산강유역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하며, 아울러 이 곳을 기점으로 남해안지역과 낙동강유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 16. 出土地未詳 國立中央博 物館藏
(高16.1cm, 口徑12.5cm, 胴部徑16.8cm)



도 17. 日本 御所市 出土(高10.4cm)

16) 金延鶴, 「熊川瓦塚研究」, 亞細亞研究通卷28號, 서울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17) 이 토기는 圓形球形壺의 后部에 사실적으로 瓦形한 두 마리의 사슴이 있다. 사슴은 북방아시아 계민족이 신성시한 동물로서 신앙의 대상이 된 神獸이다. 이러한 祭儀用의 토기에 사슴을 조각한 것은 역시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를 암시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슴장식의 유공광구호는 일본 御所市 출토예도¹⁸⁾도 있어 서로의 관련성을 짐작케 한다.

18) 國立光州博物館, 『靈岩萬樹里古墳群』, 1981.

百濟는 기록상에 기원전후부터 3세기 중엽까지 한강유역에서 十濟¹⁹⁾ 또는 伯濟라는 마한의 한 소국으로 나오고 있으나, 3세기 중후엽 이후 百濟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발전해 나간다.²⁰⁾

고고학자료 및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백제는 기원후 3세기 중후반 경인 古爾王代에 본격적인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때부터 등장하는 大形무덤과 城郭 등의 유적에서는 한강유역에서 보이던 앞선 시기의 토기와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토기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본격적인 百濟土器라 볼 수 있다.

이후 백제토기는 백제의 영역 변천과정에 따라 그 지역적인 분포가 변화하며²¹⁾, 이러한 토기 양식의 지역분포와 정치적 영역과의 일치현상은 백제와 더불어 동시대에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던 신라나 고구려의 경우에도 확인되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산강유역에서 약 6세기까지는 백제와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산강유역에서의 무덤은 甕棺墓로 토착지배층의 중심묘제이고 왕릉에 버금갈만큼 큰 대형고분으로까지 발전한 점에서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소형 옹관묘와는 다르다. 이 지역에서만 옹관을 매장시설로 가진 높은 수준의 토기제작기술이 한몫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의 원류는 현재로서는 2가지 설이 있다. 馬韓의 잔여세력으로 보는 경우²²⁾와 『昔昔』 張華列傳에 보이는 新彌諸國의 세력으로 보는 경우²³⁾가 있다. 어쨌든 이 지역은 타지역과는 다른

19) <國史記>卷 第二十三 <百濟本紀>第一

溫前王 國號十濟 是前漢成帝鴻嘉三年也

20) 朴亨發, 「백제」 『한국고대의 토기』, 국립중앙박물관, 1997.

21) 대략 4세기 중반까지는 홍성-천안, 5세기 후반경에는 금강이남의 익산, 고창지방까지 그 분포가 확대되며, 6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영산강 유역에도 나타난다. 이는 백제의 영역확대과정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22) 마한은 기원전부터 출현해 기원 369년 백제의 近肖古王에 의해 마지막으로 토벌되고 그 세력이 백제에 편입될 때까지 존재해 있었으며 중심되는 시기는 고고학 편년상 원삼국시대나 삼국시대 전기(1~300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근초고왕의 토벌 이후에도 잔여세력은 羅州 潘南面 古墳群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金銅冠, 甕棺墓와 같은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6세기까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렇지만 6세기 이후가 되면 백제 정부가 파견한 관리들이 이곳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大安里 5號墳과 같은 半天井의 백제 말기의 석실분이 입증해 준다. 따라서 이 일대가 근초고왕 이후 행정적으로 백제의 영역에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초기에는 백제와 평행하면서도 백제와는 별개인 마한의 전통을 유지한 독자적인 세력집단의 문화를 형성하였다.(崔夢龍, 「考古學側面에서 본 馬韓」 『馬韓·百濟文化』 第8·9輯, 國光大學敎 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6)

23) 新彌諸國은 1-3세기의 정치 변동 속에서 종래의 마한의 북방 강역을 잠식하면서 백제 등이 출현하는 것처럼 종래의 마한의 남방 강역을 잠식하며 등장한 별개의 국가군으로 보는 것이

문화를 유지시켰고, 有孔廣口小壺 또한 이러한 색다른 문화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2) 注口附容器와의 비교분석<圖面1, 表 2·3·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有孔廣口小壺는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하는 지역성을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3~4세기경에 출현하여 4~5세기경에 유행하고, 6세기경에는 쇠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⁴⁾

有孔廣口小壺의 器形의 변천과정은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I기는 胴部徑보다 口徑이 작고, 頸部는 짧고 구연부는 예리하게 절단된 二段口緣을 하고 있다. II기는 胴部가 약간 편평하고 頸部가 외반하면서 길고 높아지다가 나중에는 胴部가 작아지고 頸部와 口緣部가 더욱 커지면서 넓어져 가는 경향을 보인다. 후기적 특징을 보이는 III기는 胴部가 아주 작아져서 형식적인 반면 나팔상의 頸部가 특히 높아지고 口徑이 넓어진다. 이러한 器形의 변천과정은 일본 須惠器에서도 같은 양상을 띠고 있으며 유행시기는 약 5세기 중반에서 7세기 중반경이다.²⁵⁾ 즉 영산강 유역에서 거의 쇠퇴하는 무렵에 일본에서는 대유행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지역으로부터의 유입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 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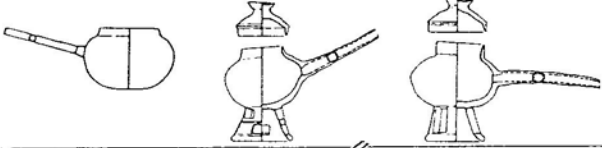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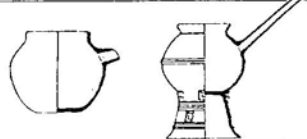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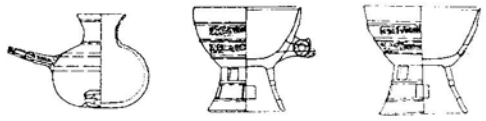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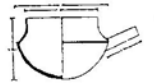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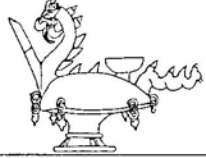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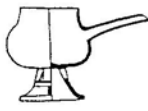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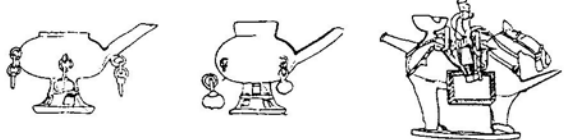
이에 비해 注口附容器는 시기적으로는 有孔廣口小壺보다는 늦은 5세기에 집중하고 6세기에 소멸하는 器種이다. 지역적으로도 신라영역에 한정된 범

을다고 본다. 新羅諸國을 마한과 연관시켜 보는 견해는 3세기 후반의 시기에 백제가 한강유역과 금강유역을 석권하고 있었던 국가로 간주하여 그 남방에는 마한 외의 다른 정치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데에서 도출된 견해일 뿐이다. 그런데 한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유역이 이 시기에 동일한 문화권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른 정치체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후기 마한은 4세기까지도 백제의 남방인 금강 수계와 그 직근 지역에 온존(姜仁求, 「屈溝土壙墓에 관한 몇가지 問題」, 『精神文化研究』, 56, p118-120, 1994.)하고 있었다고 하는 고고학계의 견해는 新羅諸國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新羅諸國을 백제나 마한 등과는 구별되는 영산강유역에 존재하고 있었던 토착문화를 영위하던 세력이었을 것으로 상정한다.(奎鍾國, 『馬韓의 形成과 變遷에 관한 考察』 『韓國 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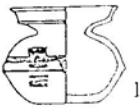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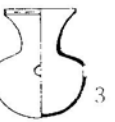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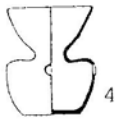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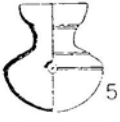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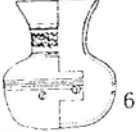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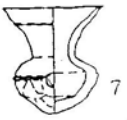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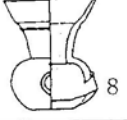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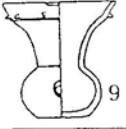
24) 李敬昌, 「有孔廣口小壺考」, 『考古美術』, 136·137, 韓國美術史學會, 1978.

25) 일본 須惠器 생산의 중심지였던 陶邑遺蹟群의 V단계 편년표에 의하면 I기(430-530)의 有孔廣口小壺(頸)는 경부가 가늘고 二段口緣을 이루며 그 끝이 외반하며 동체부는 어깨가 둥글고 팽팽하며 저부는 조금 튀어나온 기미가 있다. 그리고 胴部徑보다 口徑이 작다. II기(510-610)의 有孔廣口小壺는 고배의 長脚化에 대응해서 경부가 점점 길어지고 구연부가 胴部徑보다 커진다. III기(610-660)의 有孔廣口小壺는 실용성에서 벗어나 기형전체가 장식품화의 방향으로 바뀌고 III기 이후로는 양호한 자료가 적고 변천을 찾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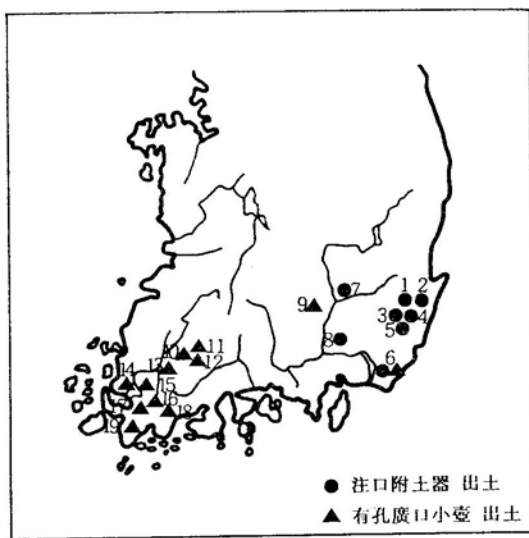
<表 2> 注口附容器 編年

	出土遺物	該當古墳
第 I 期		皇吾洞 第14号墳
		皇南大塚 南墳
		鳩岩洞 古墳
		昌寧桂南里第1号墳
		東萊福泉洞 第1号墳
第 II 期		東萊福泉洞第34号墳
		味鄒王陵C地区3号墳
		飾履塚
		金鈴塚

<表 3> 有孔廣口小壺 編年

	有孔廣口小壺			
第 I 期	 1	 2		
第 II 期	 3	 4	 5	 6
第 III 期	 7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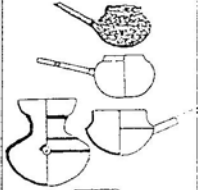




















- | | |
|--|--|
| 1. 務安社合里 夾棺壺(高16cm, 口徑10cm) | 6. 高靈池山洞 古墳群(高15.3cm, 胴部徑14cm, 口徑10.4cm) |
| 2. 靈岩內洞里 夾棺壺(高17cm, 胴部徑9.7cm, 口徑12cm) | 7. 光州双岩洞古墳群(高13cm, 胴部徑8cm, 口徑9.3cm) |
| 3. 新月里 夾棺壺(高10.5cm, 胴部徑9.4cm, 口徑7.3cm) | 8. 光州瓦社土壇壺(高12.4cm, 胴部徑9.3cm, 口徑10.6cm) |
| 4. 靈岩內洞里2號 夾棺壺(高10.3cm, 口徑10.2cm) | 9. 海南月松里 夾棺壺(高13cm, 胴部徑9cm, 口徑13cm) |
| 5. 東萊福泉洞第1號墳(高10cm, 胴部徑10.1cm, 口徑7cm) | |



- | | | | |
|---------------|--------------|--------------|---------|
| 1. 飾城塚 | 2. 金令塚 | 3. 阜南洞第14號墳 | 4. 阜南大塚 |
| 5. 味部北陵C地高靈號墳 | 6. 東萊福泉洞古墳群 | 7. 雙岩洞古墳群 | |
| 8. 昌寧桂南里古墳群 | 9. 高靈池山洞古墳群 | 10. 光州双岩洞古墳群 | |
| 11. 光州瓦社土壇墓 | 12. 光州月桂洞古墳群 | 13. 羅州大安里古墳群 | |
| 14. 務安社合里夾棺墓 | 15. 務安龍山里古墳群 | 16. 靈岩萬樹里古墳群 | |
| 17. 靈岩內洞里古墳群 | 18. 靈岩豐里古墳群 | 19. 海南月松里古墳群 | |

<圖面1> 注口附容器와 有孔廣口小壺 分布圖

<表 4> 韓·日 注口附容器, 有孔廣口小壺 比較 編年

지역 시기	영산강부근	낙동강서안	낙동강동안	일본(畿內지방중심)
200				
300				
				
				
400				
				
				
500				
				
				
600				
				
				
				
				
				
700				

0 10cm

위(낙동강동안)내에 분포한다. 그러나 器形變化의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표2>는 注口附容器를 기형변화에 의해 크게 2단계로 구분한 것이다. 즉 I기는 胴體部に 注口를 부착시킨 단순한 형태에서 이후 脚部가 붙게되고 점차 의식용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는 脚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혼재한다. 그러나 II기에는 반드시 脚部가 붙고 胴體部に 장식이 부가되며 神龜形土器나 騎馬人物形土器와 같은 異形土器에 注口가 붙는 등 고분 매장용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前記한 有孔廣口小壺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시기가 내려올수록 단순화에서 장식화, 과장화, 의기화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두 토기는 일상 생활 유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古墳 副葬品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용도 측면에서의 검토가 절실하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의 단계로서는 注口附容器가 有孔廣口小壺의 영향을 받고, 신라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성립, 발전된 것인지 아니면 상호 별개의 계보를 가지는 것인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IV. 용도

注口附容器는 그 형태의 특징상 어떤 액체를 따르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생활유적에서 발견된 예가 없는 고분 부장품이다. 그렇다면 이 注口附容器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은 용기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먼저 시기적으로 이른 有孔廣口小壺의 용도에 대해 胴體에 원형구멍이 뚫려 있어 그 형태에서 오는 용도와 성격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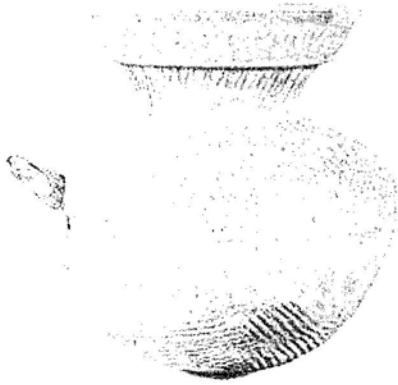
이러한 有孔廣口小壺의 용도는 몇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小孔에 竹管을 끼워 술 등의 액체를 따르는 기구로 후세의 注子の 원류로 보는 경우.²⁶⁾

둘째, 형태가 頸杯와 같은 점에서 일종의 飲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맹세나 의식때에 술, 피 등을 나누어 마시는 그릇으로서 갈대따위를 꽂아 빨아마시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²⁷⁾

26) 일본의 鎌은 그 舊稱 ハサフ에서 유래된 것으로 延喜式에서는 竹管을 집가한다 하여 그 壺身 中腹部에 圓形小孔을 뚫고 그 구멍에 죽관을 꽂아 注口小壺로 변형하여 술을 따르는 기구이고 후세의 注子の 원류가 된다. 後藤宇 : 『須惠器と土師器』『圖説日本文化史大系』, 東京 小學館, 1958.

27) 金元龍, 『新羅土器』, 悅話堂, 1981.



도 18. 日本 堺市ツ池遺蹟 出土
(高15.3cm, 口徑12.3cm, 脚部徑16cm)

셋째, 기름등잔으로 사용한 경우.²⁸⁾

넷째, 고배등과 같이 제사용으로 사용한 경우.²⁹⁾

그런데 日本 堺市 四ツ池遺蹟에서 出土도 18)된 有孔廣口小壺³⁰⁾는 卍孔에 나무 갈대기(葎)가 꽂힌 상태로 발견되어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용기임을 시사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有孔廣口小壺의 용도 또한 일본과 같이 卍孔에 竹管과 같은 것을 끼워 사용한 注子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注口附容器와 마찬가지로 有孔廣口小壺는 생활유적에서 발견된 예가 없고 무덤에서만 출토되므로 장례의식에서 술 또는 피를 담는데 사용한 토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注口附容器가 출토되는 고분에 매장된 피장자의 성별이 남성으로 판단되는 점³¹⁾은 술이나 피를 마시는 풍습은 남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우리나라 고대에 술과 피를 마시는 풍습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문헌에 의하면 이러한 기록을 엿볼 수 있다.³²⁾

28) 黄龍軍, 『靈岩內洞里樂器集調査報告』, 慶熙大學校博物館, 1971.

29) 田邊綱平, 『須惠器』 『古代史發掘』 6 古墳と國家の成立, 東京講談社, 1975.

30) 일본에서는 유광광구소호를 罎이라고 부르고 있다.

31) 성별추정에 있어서 각 고분 출토유물 중 부구류, 환두대도, 대도 그리고 마구류 등은 피장자의 성별을 남성으로 판별할 수 있다.(김선주, 『피장자 성별분계로 통해 본 신라적석목곽분 사회의 성격』 『韓國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1997)

32)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夷傳.

<大餘國> 食飲用俎豆, 會同拜禮洗爵, 揖讓升降, 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 식생활에는 제기를 사용하며, 모임에서는 읍하며 잔을 권하고, 또한 잔을 씻어 권하며, 읍하고 사양하며 자리를 오르내린다. 실답에 하늘에 제사 지내며 크게 모여 연일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데 이름하여 '영고'라 한다.

<濊>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恒常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밤

우리나라의 고대 釀造技術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농경의 개시와 함께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신라보다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먼저 발달하였다.

고구려인들은 酒造術이 좋다는 기록을 보아³³⁾ 특별한 製法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양조법은 口嚼酒³⁴⁾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고구

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니 이름하여 '무천'이라 한다.

<韓>馬韓- 常以五月田竟祭鬼神, 晝夜酒會, 琴瑟歌舞, 舞輶數十人, 杖鼓蹋地爲節. 항상 오월이면 밭일을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며 밤낮으로 술자리를 열고 무리지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춤을 춘 때는 번번이 수십명이 서로 따르며 절도있게 땅을 밟는다.

《舊唐書》卷199 上, 列傳149 上, 東夷

<百濟> 先祀神祇及川谷之神, 而後歃血. 먼저 하늘과 땅의 신령 및 하천과 계곡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피를 들이마셨다.(664)

33) 《一國志》卷30 魏, 30 烏丸鮮卑夷傳

《梁書》卷51 列傳48 東夷

《南史》卷79 列傳69 夷貊下 東夷

<高句麗> 其人潔清自喜, 善藏醞.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음식음)저장하고, (술)빚기를 잘한다.

34) 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의 주성분은 전분인데 불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는 효모로 사용할 수 없고 포도당이나 그것이 이분자 결합한 맥아당까지 분해되어야 한다.(그 일을 糖化라고 한다.) 전분은 불을 가해서 가열하면 강한 구조가 붕괴되어 효소분해되기 쉽게 된다. 전분 분해 효소를 아밀라아제라고 하는데 이 효소는 사람을 포함한 생물에게 넓게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밥을 씹으면 달게 되는 것도 침에 포함된 아밀라아제에 의한 전분이 당이 될 때까지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술을 만드는 데에는 부족이 필요한데, 靺鞨人은 이러한 효소제를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곡식 낱알을 씹어서 침의 효소를 이용하여 술을 담구었음을 보여주며, 또 그 술이 독하여 마시면 몹시 취하여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한다. 《松漠雜記》에 의하면 '술에 취하면 깨어날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으로 이 지방의 술이 독하였음을 알 수 있다. 波純聲에 의하면 술에는 3종류가 있는데, 농경사회에는 곡주와 과일주가 있고 유목사회에서는 우유로 만든 乳酪(유명)이 있다고 한다. 곡주는 발효하는 효소로써 細菌類·唾液·溫度·發芽하는 種子등을 이용하여 술을 담으며, 과일주와 유명은 그 자체에 있는 천연의 효소를 이용하여 술을 담구었다고 한다. 이로보아 당시 발갈인은 타액용 이용하여 곡주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波純聲, 《松花江下的滿鮮哲族》p.71)

또한 일본어의 <釀す>라고 하는 말은 嚙(깨물 교)에서 왔다고 한다. 씹은 곡류의 전분이 타액의 당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고 이것이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효모에 대해서 발효하여 술이 된다.

이 작용은 옛날부터 술을 만든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 곡류를 씹어 만든 술은 세계에 넓게 분포하며 일본에서도 8세기 大開國風土記에 "남녀 모여서 쌀을 씹어 용기에 뺀어 놓아..."라고 기술되어 있고 근년까지만 해도 오키나와에 그 풍습이 남아 있었다. 고대 캄보디아에서는 미인주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미녀나 소녀가 이 일을 담당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소녀들이 가늘게 찢은 사탕수수의 줄기로 이를 갈아 조와 쌀을 씹어 술을 맛있게 했다. 대만에서도 구주제법은 최근까지 원주민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주요원료는 조, 찹쌀,

려와 인접했던 諸國의 釀造技術에 관한 기록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³⁵⁾

백제는 일찍부터 稻作이 전파되어 쌀이 주식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고구려와 인접하고, 또한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한 까닭으로 고구려와 중국의 선진기술을 일찍부터 받아들여 주조기술도 전파되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 주조기술을 최초로 전한 것은 백제인 仁飡(별명 須須許理)였다. 須須許理가 일본에 건너가서 応仁天皇 때에 누룩으로 만든 주조기술을 전한 것이 일본에 있어서 누룩에 의해 만든 술만들기의 시작이었다. 지금도 京都府綴喜郡田辺町에 있는 佐牙神社는 須須許理祭神으로 제사하고 있고 신사의 근처에는 須須許理를 묻은 고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백제인이 전한 주조기술은 일본에 전한 酒造技術史上 획기적인 것이다.³⁶⁾ 須須許理가 일본에 전한 釀造技術을 기초로하여 奈良時代의 술을 『正倉院文書』에서 보면, 清酒, 濁酒, 糠酒, 白酒, 黑酒 등이 있고 이는 모두 쌀에서 주조된 것으로 백제의 술도 이와 같다고 추정된다.³⁷⁾

신라의 술은 唐代의 詩文에 「一盞新羅酒凌恐左銷」라고 읊고 있다.(李商隱 詩文) 이 시문의 내용에 따르면, 이 술은 쌀로 주조한 것이고, 취하기 쉬운 술이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술이 발효도가 높은 술이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³⁸⁾ 미곡의 증산과 함께 쌀로 좋은 술을 빚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三國은 농경생산력의 향상과 더불어 주로 쌀로 술을 만들었고, 釀造法은 처음에는 口嚼酒였을 것이고, 이후에 누룩에 의한 술을 만들게 되

고구마 등으로 조와 쌀이 많이 사용된다. 우선 조와 쌀을 나무절구에 넣고 절구방아로 썰는다. 꺼내어 충분히 삶은 후에 대나무 그릇에 넣어 식힌다. 그 후에 여러 소녀들이 대그릇을 둘러싸고 썰는다. 썰는 것이 끝나면 웅에 넣고 그 위에 생조와 쌀가루를 넣고 물을 더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강해진 않지만 약간 단맛을 가지는 美酒가 된다. 가장 유명한 것은 잉카의 치차이며 잉카의 수도인 쿠스코에 지금도 남아 있는 견고한 돌로 만든 신전에서는 아름다운 무녀 마마쿠냐들이 삶은 옥수수를 씹어서 술을 만들고 신에게 바쳤다. 현재 치차의 대부분은 보리로 만들고 있고 원래의 치차 만들기는 일부 약간의 인디오들에게만 전해지고 있다.

35) 《魏書》 卷100 列傳88.

<勿吉國> 嚼米爲酒. 飲能至醉. 쌀을 씹어 술을 빚는데 마시면 능히 취하기도 한다.

<北史> 卷94 列傳82

<勿吉國> 嚼米爲酒. 飲之亦醉. 쌀을 씹어 술을 빚는데 마시면 역시 취한다.

<隋書> 卷 81 列傳46 東夷

<靺鞨> 嚼米爲酒. 飲之亦醉. 쌀을 씹어 술을 만드는데 마시면 역시 취한다.

<室韋國> 造酒食噉. 與靺鞨同俗. 술을 만들고 음식을 먹는 것은 말갈과 같은 풍속이다.

36) 渡邊實, 『日本食生活史』, 吉川弘文館, 1964, p.62-63.

37) 尹瑞石, 『韓國의 食文化史』, 도메스出版, 1995.

38) 註37과 동일.

었다고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飲酒는 祭禮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³⁹⁾ 마시는 방법에도 엄밀히 作法이 행해진다.⁴⁰⁾ 아마 입으로 씹어 만든 술은 다량의 술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1, 2회의 제사때에 徹夜로 마시는 타입이어서 술은 일상의 음료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처럼 그 당시의 술은 항상 즐길 수 있는 흔한 것이 아니라 제사때나 특별한 의식과 행사가 있을 때만 사용한 귀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를 마시는 풍습은 중앙유라시아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들 스텝지역에서는 주로 목축생활을 하였고, 그 중 말은 가장 긴요한 동물이었다. 말은 騎乘用 뿐만 아니라 살아 이동하는 완전식품저장고의 역할을 하였다. 즉 말은 전투용 외에도 고기, 피, 젖, 유제품 등을 부족함없이 제공하였다.⁴¹⁾

신라지역에서는 飲器로서 注口附容器 뿐만이 아니라 飲器로서의 기능을

39) 고대인에게 있어서 유주는 제례외에 혼례시나 특별한 연회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北史》 卷94 列傳82.

《隋書》 卷81 列傳46 東夷

〈高句麗〉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남자의 집에서는 돼지와 술을 보낼 뿐이며 재물로서 장가를 드는 예법은 없다.

4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列傳.

《梁書》 卷54 列傳48 東夷

《北史》 卷94 列傳82.

〈韓〉 辰韓- 行酒爲行酌. 연회석에서 술잔을 돌리는 것을 행상이라 한다.

《國遺事》 卷第一

至十年乙丑 王召集奈調亞及國中諸侯 親賜御宴 進酒 王行 衆勿樂王初作 分觴而飲 - 奈勿王·金提士대에 신라의 19대 눌지왕 9년(425년), 신하와 나라안의 병사를 초대해서 연회를 개최했을 때 「술이 座中에 3번 돌면 음악이 시작된다.」 또는 「酒盞를 나누어 마신다.」라는 기록이 있다. 즉 연회는 음악과 무용이 수반되어졌다.

41) 정복시대의 몽고인들은 장기간의 출정시 일인당 18마리 정도의 암·수 말을 끌고 간다. 가다가 허기를 느끼면 칼로 말의 정맥에 상처를 내어 한마리씩 돌아가면서 약 0.5ℓ의 피를 뽑아 마신다. 이 정도면 기수는 물론 말 것들의 효율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동력 있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식품으로서의 혈액의 큰 이점은 그것이 특별한 수송이나 준비 또는 조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료를 수집하여 불을 피울 필요가 없고 불을 피우지 않은은 적에게 자신을 노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아시스를 근접하여 유목을 하면서 항상 식물성 식량의 교환이 이루어졌던 서남아시아의 유목민들과는 달리 이 지역은 늘 괴혈병의 원인이 되는 비타민C의 결핍위험에 직면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馬乳를 마시므로서 극복된다. 馬乳에는 母乳의 2배, 牛乳의 4배나 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 이를 해결해 준다. 또한 이러한 가축의 젖으로 술을 만들어 흑한을 아겨낸다.(宋成大, 『文化地理學講義』, 法文社, 1994)

할 수 있도록 속이 비어 있거나 빨간 등이 붙어 있는 용기가 많다. 이들은 신라와 가야의 토기에 많이 보인다. 이러한 토기 역시 일상생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장례시 제사과정에서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데 직접 사용되었거나 죽은 사람의 안식과 영혼의 승천과 같이 사후세계에 대해 어떤 상징적 기원을 표현한 것으로 의식에 사용된 후 매장된 토기이다. 그 예로서 鴨形土器, 車形土器, 履形土器, 角杯 등이 있다. 이 토기들도 의식성이 강한 飲器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로 낙동강 동안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앞으로 注口附容器와 함께 고려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V. 新羅의 정치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

注口附容器는 5세기대에 慶州 지방을 중심으로 한 洛東江 東岸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注口附容器가 경주를 중심으로 낙동강 동안에만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점과 洛東江 西岸의 가야지역에서 출토되지 않는 점은 영산강 유역과 낙동강서안 지방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有孔廣口小壺와의 문화적 지역차를 표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행하여 유행한 有孔廣口小壺가 注口附容器에 미친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면 注口附容器가 유행을 본 5세기대에는 어떠한 정치적·문화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을까.

신라가 낙동강 동쪽의 경북일대를 지배하는 큰 연맹왕국을 완성한 것은 奈勿麻立干(356-402)때라고 한다.⁴²⁾ 그 이후 實聖麻立干(402-417), 訥祗麻立干(417-458), 慈悲麻立干(458-479), 炤知麻立干(479-500)등 5세기대의 왕의 칭호를 麻立干으로 일컬었으므로 5세기대를 麻立干時期라 해도 좋을 것이다.⁴³⁾ 즉 尼師今 대신에 麻立干이라는 왕호가 쓰이게 된 것은 정복과 동맹을 통하여 斯盧國이 이때 강력한 국가로 비약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奈勿麻立干22년(377)과 26년의 두차례에 걸쳐 고구려 사신의 안내를 받아 前秦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보아 내물마립간 때에는 신라가 그 이전 단계와는 달리 정치적으로 커다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⁴⁾ 그리고 奈勿麻立干부터 三姓交立의 현상이 없어지고 김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되며, 訥祗麻立干때 왕위의 부자상속제도가 확립되고 慈悲麻立干과 炤知麻立干때 6촌을 6부로 개편하

42) 李基白, 李基東 『韓國史講座』 古代篇, 潮閣, p.123-288.

43) 《三國史記》에는 訥祗에서부터 마립간 칭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三國遺事》에는 奈勿부터 마립간 칭호를 쓴 것으로 되어 있다. (李宇泰, 「신라의 융성」 『한국사』 7, 국사편찬위원회, 1997)

44) 《三國史記》卷第三, <新羅本紀> 第三 奈勿尼師今.

여 중앙집권적 체제를 이룩하였으며 곳곳에 郵驛을 설치하고 수도에 市肆를 열어 物貨를 유통케 하였다.

이처럼 신라는 시기적으로 5세기대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아울러 대형고분을 축조하기 시작한다. 麻立干의 칭호가 王으로 바뀌는 것은 6세기 智證王부터이다. 즉 6세기초에 귀족국가를 완성하게 되어 국호를 新羅로 정하게 되니 5세기는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奈勿麻立干이 등장하던 4세기 후반 당시의 국제 정세는 고구려·신라의 연합과 백제·왜·가야 연합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신생 斯盧가 흥기하기 시작하였을 때이며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전이었다. 그리고 5세기에는 이미 불교가 신라영역의 북쪽지방에 파급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신라왕실이 불교를 공인하기 전이었다. 이러한 5세기대의 정치적인 상황은 왕권강화와 더불어 어떤 새로운 문화의 유입을 짐작케 한다.

김씨왕조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를 騎馬民族의 도래와 이에 따른 정복국가의 성립⁴⁵⁾이라는 입장에서 설명하려는 견해가 있다. 신라에서의 정복국가론의 출현배경은 三國史記 초기 기록의 신빙성 문제와 三姓交立이라는 왕조의 교체, 그리고 積石木槨이라는 특이한 묘제의 등장등과 관련하여 제기되어 왔다.⁴⁶⁾

한 정복국가설에 의하면 시베리아 동쪽의 오르도스 철기문화가 한국문화와 직결되는데 오르도스 철기문화의 주인공들은 漢의 팽창으로 일파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헝가리 즉 훈족의 나라를 세웠고, 동쪽으로 이동한 일파는 한반도로 진출하여 일본열도까지 상륙했다는 것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新羅 積石木槨墳의 주인공들은 한반도 서북부 지역을 거쳐 東南進한 시베리아 주민의 후예로서 시베리아 오르도스계의 大形 積石木槨墳과 鐵器, 繩帶文土器, 金細工技術을 가지고 남하하였다는 것이다.⁴⁷⁾

또 다른 정복국가설에 의하면 高大封土인 積石木槨墳은 한반도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흑해 북안의 스키타이 지방에서 비롯하였으며, 기동력을 갖춘 騎馬民族의 문화가 신라에 미쳤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기의 민족 대이동에 積石木槨墳을 묘제로 하는 기마민족의 일파가 4세기 전반기에 慶州에 도달

45) 정복국가란 민족이동기에 만주 방면에서 기병전 위주의 전쟁수행능력을 가진 집단이나 북방 유목민족이 한반도 지역으로 남하하여 토착세력을 제압하고 세운 왕조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46) 李道學, 「4세기 정복국가론에 대한 검토」, 『韓國古代史論叢』 6, 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1994, p245-278.

47) 李鐘宣, 「오르도스後期 金屬文化와 韓國의 鐵器文化」, 『韓國上古史學報』 2, 1989, p15-90.

한 결과 신라에서 김씨왕조가 성립되고 麻立干이 등장했다는 것이다.⁴⁸⁾

고고학적으로 積石木槨墳의 등장 시기는 대략 4세기 중엽 무렵이므로 이는 문헌 기록상으로 奈勿麻立干의 등장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⁴⁹⁾ 積石木槨墳의 기원과 계통 문제에 대해서는 이를 북아시아의 묘제와 연관하여 파악하는 견해가 유력하다.⁵⁰⁾ 따라서 김씨왕조의 등장과 기마민족의 이동을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注口附容器의 출현은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린 새로운 문화요소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즉 이 토기는 積石木槨墳의 유입과 더불어 존속 시기에만 보이는 특이한 器種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낙동강 동안 지역중 종래 가야권에 속한다는 곳에서 注口附容器가 출현하고 있어, 이 시기 신라와 가야의 문화권 구분에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신라와 가야와의 문화권 분류에 있어서는 이미 선학들의 많은 이견이 있어 왔다.

金元龍은 신라·가야 문화권의 구분문제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여, 4·5·6세기의 신라토기는 경주·양산·달성·창녕 등의 낙동강 동안 지대의 토기와 낙동강 서안 성주의 토기가 포함되는 新羅中心圈과 김해·함안·진주·고령 등 낙동강 서안 특히 그 남부지방의 토기로 구성되는 伽耶中心圈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⁵¹⁾

全吉姬는 묘제의 측면에서 5세기초에서 6세기말까지의 시기에 낙동강 동안(성주 포함)과 서안 지방으로 구분하고 있다.⁵²⁾

李殷昌은 3세기 후반 이후 낙동강 유역 출토 토기를 모두 가야토기로 보되 낙동강 동·서안 지방에서 양식상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⁵³⁾

48) 崔秉旻, 『新羅古墳研究』, 志社, 1992, p397-415.

49) 이에 대하여는 일부 이견이 있다. 『國史記』 권3, 新羅本紀3, 눌지마립간 19년(435)에 “2월에 歷代의 國號을 修訂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증은 신라에서 적석목곽분의 발생을 알리는 『新羅制施行令』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申敬識, 『古式箋子考』, 『釜大史學』, 9, 1985)

50) 沈奉謙은 적석목곽분시기를 약 4C-6C에 걸쳐 유행한 묘제라 보고 그 기원과 동방유물의 특징에서 북방초원지대적인 요소가 강한 시기라 보고(沈奉謙, 『考古學上으로 본 新羅文化의 國際性』, 『新羅文化』, 第八輯, 1991), 金元龍은 흑해 북안에서 일어난 목곽분 문화가 시베리아 지역으로 전파되어 前漢과 樂浪에도 미치게 되었는데, 경주의 적석목곽분은 그 마지막 형식이라고 하였으며(金元龍, 『韓國文化의 起原』, 『文理大教養講座』, 1, 서울대학교, p10-11.), 金秉旻은 적석목곽분의 계통을 알타이 지역의 피지락 고분군과 신라 금관의 계통을 중앙아시아 지역의 冠帽과 연결시키고 있다.(金秉旻, 『한국인의 발자취』, 正音社, 1985, p208-209)

51) 金元龍, 『新羅土器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0, p6.

52) 全吉姬, 『伽耶墓制의 研究』, 『梨大史苑』, 3, 1961, p52.

53) 李殷昌, 『新羅·伽耶土器 編年에 關한 研究』, 『曉星女子大學敎研究論文集』, 23, 1981.

金廷鶴은 가야에 대한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통합을 시도하여 고고학적 유적들을 邑落國家에 해당하는 先加耶時代(紀元前)와 邑落國家聯盟에 해당하는 加耶時代 前期(1-3세기), 加耶時代 後期(4-6세기)로 구분하고, 가야 전기의 맹주국은 金海加耶였으며 그것이 가야 후기의 말기에 高靈의 大加耶로 바뀌었다고 한다.⁵⁴⁾

문헌상으로 보아 加耶라는 이름을 쓰는 국가는 둘이 있다. 400년경까지는 김해의 가락국이 가야라고 칭하였고, 5세기 후반 이후로는 고령의 대가야국이 가야라고 칭하였다. 400년경에 김해 가락국은 국제관계에 휘말려 중심 소국들이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받고, 창녕 등 낙동강 동안의 일부 세력들은 고구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세력을 키워나가던 경주 중심의 신라 지역으로 이탈하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5세기이후 경상도 지역의 小國의 首長들이 사용하던 金銅冠이 신라의 金冠과 똑같은 出字形 입식으로 획일화되는 것은 바로 신라 세력이 이들 소국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5-6세기경 가야 문화의 중심은 고령 대가야를 기점으로 한 경상도 내륙 및 낙동강 서안 10여 소국들의 역사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注口附容器 출현 시기에 이미 가야 세력은 낙동강 서안을 중심으로 하고, 낙동강 동안은 신라의 영향력이 문화적 측면에서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注口附容器와 같은 기능을 가졌으나, 이보다 앞서 유행한 有孔廣口小壺가 낙동강 서안과 영산강유역만을 중심으로 출토하는 공간적 제한은 그당시 정치적·문화적 경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新羅 注口附容器의 분포와 용도에 관해서 有孔廣口小壺와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분포의 측면에서 注口附容器는 慶州를 중심으로 한 洛東江 東岸 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종래 加耶라고 일컬어왔던 鳩岩洞 第56號墳이나 桂南里 第1號墳, 東萊 福泉洞古墳群 등에서 注口附容器가 출토되고, 또한 이들의 고분형식이나 출토유물에서 일반적인 가야묘제와 다른 점은 신라와의 관계를 짐작케 했다. 그리고 靈山江流域을 중심으로 한 洛東江 西岸

_____, 「伽耶古墳의 編年研究」, 『韓國考古學報』, 12, 1982.

54) 金廷鶴, 「古代國家의 發達(伽耶)」, 『韓國考古學報』, 12, 1982.

_____, 「伽耶史의 研究」, 『史學研究』, 37, 1983.

의 有孔廣口小壺의 분포로 미루어 볼 때에도 당시의 정치적·문화적 경계를 알 수 있었다.

용도의 측면에서는 이들 두 토기는 모두 注子로서 祭儀時에 술 또는 피를 따르는 역할로 추정되고, 器形의 변화과정에서는 단순화·실용화에서 과장화·의기화로 바뀌는 동일한 과정을 보인다.

注口附容器는 5세기대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나, 당시 고분출토품 중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注口附容器를 통해서 당시 신라영역 혹은 신라의 간섭하에 있었던 지역의 범위를 찾아내고, 注子로서의 기능을 좀더 구체화하는데 이 글의 의의를 두고 싶다.

그러나 注口附容器가 시기적으로 이른 有孔廣口小壺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5세기경의 왕권강화와 더불어 보이는 새로운 문화요소 중 하나인지는 차후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謝辭

본 줄고를 위해 지면을 허락해주신 심봉근선생님과 본고의 작성과정에서 조언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이난영선생님, 박광춘선생님, 박은경선생님, 그리고 동아시아문물연구소 여러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國文>

- 姜仁求 著, 『考古學으로 본 韓國古代史』, 學研文化社, 1997
姜仁求 編, 『韓國古代의 考古와 歷史』, 學研文化社, 1997
國立中央博物館, 『韓國 古代의 土器』, 1997
國立慶州博物館, 『新羅土偶』, 1997
國立慶州博物館, 『신라인의 무덤』, 1996
國立光州博物館, 『靈岩萬樹里古墳群』, 1984
國立光州博物館, 『靈岩萬樹里4號墳』, 1990
國立光州博物館, 『湖南月松里造山古墳』, 198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6, 탐구당문화사, 199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7, 탐구당문화사, 1997

- 權寧弼, 『실크로드 미술』, 열화당, 1997
- 啓明大學校博物館, 『高靈池山洞古墳群』, 1981
- 金元龍, 『日本陶器古窯群』, 『考古美術』, 136·137, 韓國美術史學會, 1978
- 金元龍, 『新羅土器』, 열화당, 1994
- 김기웅, 『고분』, 대원사, 1991
- 김부식, 『三國史記』, 신서원, 1995
- 金聲九, 『中國正史朝鮮列國傳』, 東文選, 1996
- 東亞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第一號古墳發掘調查報告』, 1971
- 東亞大學校博物館, 『博物館圖錄』, 1977
-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南大塚(南墳)』, 1994
- 孟子在, 『新羅와 百濟工藝 比較小考』, 『馬韓·百濟文化』, 第八·九輯,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6
- 朴廣春, 『伽倻土器의 地域色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第24號, 1997
- 朴容淑, 『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 一志社, 1992
- 宋成大, 『文化地理學講義』, 法文社, 1994
- 沈奉謹, 『考古學上으로 본 新羅文化의 國際性』, 『新羅文化』, 第八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91.
- 安承周, 『百濟土器의 發達과 그 特徵』, 『百濟의 彫刻과 美術』, 公州大學校博物館·忠清南道, 1991
- 李蘭暎, 『韓國古代金屬工藝研究』, 一志社, 1992
- 李殷昌, 『皇南洞古墳出土 神龜形土器와 角坏 및 角坏받침』, 『考古美術』, 132, 韓國美術史學會, 1976
- 李殷昌, 『有孔廣口小壺考』, 『考古美術』, 136·137, 韓國美術史學會, 1978
- 이중선, 『古新羅 積石木槨墳의 品階와 編年』, 『韓國考古學報』, 35, 韓國考古學會, 1996
- 李榮姬, 『古新羅金屬工藝의 鍍金細工技法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8
- 嶺南大學校博物館, 『皇南洞古墳發掘調查報告』, 古蹟調查報告 第1冊, 1975
- 嶺南大學校博物館, 『鳩岩洞古墳發掘調查報告』, 古蹟調查報告 第2冊, 1978
- 嶺南大學校博物館, 『昌寧桂城里古墳群』, 學術調查報告 第9冊, 1991
- 조선대학교박물관, 『광주 산월·뚝뫼·포산 유적』, 1995
- 秦弘燮, 『韓國美術全集』, 3 土器 土偶 瓦埴, 同和出版公社, 1974
- 秦弘燮, 『東北亞細亞에 있어서의 百濟文化』, 『馬韓·百濟文化』, 第八·九輯, 圓

- 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6
- 全羅南道 木浦大學校博物館, 『全南斗 古代墓制』, 1996
-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1992
- 崔夢龍, 『考古學的 側面에서 본 馬韓』, 『馬韓・百濟文化』, 第八・九輯, 圓光大學
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1986
- 韓炳三, 『韓國美術全集』, 2 古墳美術, 同和出版公社, 1975

<日文>

- 金關 恕, 佐原 眞, 『弥生文化の研究』, 4 弥生土器 II, 雄山閣, 1987
- 吉澤 淑, 『酒の文化誌』, 丸善株式會社, 1991
- 東京國立博物館, 『伽倻文化展』, 朝日新聞社, 1992
- 大阪府立彌生文化博物館, 『彌生人の食卓』, 1985
- 『陶邑・伏尾遺跡』, A地區, 大阪府教育委員會, 1990
- 『陶邑古窯地群 I』, 平安學園考古學クラブ, 1966
- 『陶邑IV』, 大阪府教育委員會, 1979
- 菱田哲郎, 『須惠器の系譜』, 歴史發掘10, 1996
- 白石太一郎, 『古墳への旅』, 朝日新聞社, 1996
- 『世界陶磁全集』, 2 日本古代, 小學館, 1979
- 尹瑞石, 『韓國の食文化史』, メドス出版, 1995
- 李殷昌, 『新羅・伽倻の陶土工藝の歴史と技術』, 『韓國のやきもの 1 新羅』, 淡交
社, 1977
- 田邊昭三, 『須惠器』, 『古代史發掘⑥-古墳と國家の成立』, 講談社, 1975
- 『沖ノ島展』, 出光美術館, 1977
- 秋山裕一, 『日本酒』, 岩波新書, 1997
- 朝鮮總督府, 『大正13年 朝鮮古蹟調査報告-慶州金鈴塚飾履塚發掘調査報告』, 民
族文化社, 1983
- 朝鮮總督府, 『昭和9年 朝鮮古蹟調査報告-慶州皇南里第九號墳皇吾里第十四號
墳調査報告』, 民族文化社, 1984
- 後藤守一, 『須惠器と土師器』, 『圖說日本文化史大系』, 東京小學館, 1958